

충남 경찰 불심 '선봉'

도내 19개 경찰서 모두 불자회 가동 '눈앞' ... 10월에 축제 한마당

충남지방경찰청은 대전·충남의 모든 시·군·구에 19개 경찰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19개 경찰서 모두에 불교회가 생겼다. 8월 아산·조치원·청양에 이어 9월 금산경찰서가 불교회를 창립을 앞두고 있다.

지방경찰청 산하의 모든 경찰서에 불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전국에서 충남도가 유일하다. 충남경찰청 불교회는 모든 경찰서의 불교회 창립이 완료된 직후인 10월 충남지역 경찰불자들과 가족, 경승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 한마당을 계획하고 있다. 실로 놀랄만한 성과다.

이렇게 충남지역 경찰불심이 하나로 모아지기까지는 경승단 충남지단장 장곡 스님(공주 감사 주지)과 김종겸 전 충남지방경찰청장(예산 감사), 이기병 충남경찰청 불교회장(인사계장·경정)의 경찰불교 활성화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충남지역 경찰불심을 모으는 불씨는 2001년 11월 충남경찰청장



장곡 스님



김종겸 회장



이기병 회장

으로 부임한 김종겸 전 청양(예산 감사)이 지켰다. 대한민국경찰 불교회 초대회장이었던 김 전 청장이 부임했을 당시 충남경찰청 관내 5개 경찰서에 불교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활동하는 곳은 단 2곳 뿐이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석사 주지였던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후원을 받아 부임한지 3개월여 만에 충남경찰청 불교회를 창립한 데 이어 대전중부, 서산 등 10여곳의 경찰불심을 모으는 성과를 이 끌어냈다.

이후 충남 경찰불심을 규합하는 역할은 경승단 충남지단장 장곡 스님과 이기병 충남경찰청 불교회장에 이어졌다. "올해 반드시 모

든 경찰서에 불교회를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운 이기병 회장은 경찰불심을 이끄는 '수레꾼'이 됐고, 장곡 스님은 뒤에서 미는 '도우미'가 됐다. 불교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서장과 지역사찰 주지 스님을 찾아가 만나기를 수차례, 지난 6월과 7월 홍성경찰서와 서천, 예산경찰서의 불교회 창립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종교모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휘관이나 다른 종교인들의 시샘어린 눈길은 가장 부담스런 난관이었다.

장곡 스님은 "유독 불교만 뛰는 듯한 행보를 다른 종교인들이 좋아할 리 없는게 인지상정"이라며

"다른 종교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불교회와 경승실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한다.

충남지역 경찰불심을 한데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다. 경승실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경복실과 경신실을 함께 만들었던 것. 지휘관이 다른 종교를 가졌을 경우에도 경찰불자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협조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조선휘 충남경찰청장은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일선 경찰서에 봉축법요식과 연등을 달 것을 공문으로 하달하기도 했다.

경찰불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이기병 회장은 "지역사찰에 기반을 두고 협조를 이끌어낸 것이 충남지역 경찰불심을 모으는 원동력이 됐다"고 소개하고,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불교모임이 결성돼 민생지인과 불교가 접목된 새로운 신행풍토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금강산 신계사에서 7월 22일 열린 첫 남북 신도 합동법회에서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공동성명과 통일을 기원하는 공동발원문을 채택했다.

"통일보살의 화신이 됩시다"

남·북 신도 신계사에서 첫 합동법회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북의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도들과 북측의 조불련 전국신도회 신도들의 합동법회가 열렸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6·15 공동선언실천,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이하 합동법회)'에는 남북 신도 250여명이 참석해 통일과 화합을 기원했다.

북측에서는 심상진 조불련 부위원장(북측)을 비롯해 정서화 서기장, 차금철 스님, 정각 한성기 스님, 연암 이규용 스님, 해안 이영호 스님, 대영식 조불련 신도회장, 정영호 조불련 전국신도회 평양시 신도회장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최연 사무총장(중앙신도회)과 김명희 위원(조불련 전국신도회)의 사회로 막을 올린 합동법회는 정인아

중앙신도회 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육법공양 헌화 헌화가 이어졌다. 삼귀의례는 해안 이영호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라영식 회장(조불련 전국신도회)은 대회사에서 "우리 불교도들은 애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이어 평화수호를 위한 반전평화공조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땅 위에 이상정도를 세우는 통일보살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의정 회장(한대행(중앙신도회) 역시 대회사에서 "민족의 영광과 불심을 모아 통일 국가 통일 불교가 되기를 서원"했다.

글·사진/금강산 신계사·강지연 기자

하와이 영어·역시킴프

本社 주취, 7월 28일 출발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하는 부다피아 영어·역시킴프 캠프가 7월 28일 시작, 8월 18일까지 21박 22일간 하와이 무라사에서 열린다.

17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원어민 교수진의 미국의 어학연수기관 교재를 통한 단계별 수업과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일간 부다 뉴스에 마련된 '김원우 기자와 함께 하는 하와이 캠프(hompy.buddhapia.com/homepy/hawaii)'에서 참가자들의 생활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소개한다.

김원우 기자

경주 황룡사 복원한다

문광부, '경주 역사문화도시사업' 발표

한국사상 최대 거찰 황룡사(사적 제6호) 복원이 추진되고, 경주 불교 유적지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린 선도시 사업 보고회에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광부는 2034년까지 30년간 2조 3천840억원을 들여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완성하며, 우선 1단계로 2009년까지 △황룡사 부분 복원 △불국토 남산과 종교유적지 관광환경 조성 △지역활성화를 위한 명품관광 거점 조성 등의 계획이 추진된다.

황룡사 복원과 관련,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황룡사에 금당 건립 및 이를 둘러싼 회랑의 부분복원이 모색되고 있다. 황룡사 복원 방안은 2006년에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 불교성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남산의 공간 체계를 개선하며, 도로정비, 불법분묘 철거, 경주교도소 이전이 추진된다. 또 불국사 성보박물관 건립을 통해 불국사 유적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문광부는 밝혔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일반인과 함께 여름워크숍

한국불교학회, 8~9일 本社 연수원서

한국불교학회(회장 이명래) 2005년 여름 워크숍이 8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현대불교신문사 부설 연수원에서 개최된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한국사회'를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보화·환경·경제·남북통일·생명공학·종교문제 등 다양한 분야가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불교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불교적 시각이 사회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환 총부대 교수, 정기문 강원대 교수, 김성현 동국대 교수, 윤영해 동국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서재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한국불교학회는 비회원에게도 문호를 개방, 불교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참가신청은 8월 5일까지. (02)2260-8507 박익순 기자

하계휴가 관계로 금주 24면 발행

할

산속에 있으니 기쁨 시비걸고 때리더니

내가 물어도 '예 예' 하니가

이것도 자연의 의지 인지...

그림·조태호

무공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2, 13면에서 만나세요)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깨달음으로 가는 길

2005.8.6~10.9 (총10회 · 10월 9일 회향 보살계수계법회)

宗進 스님 (8월 6일)
(해인총림 울주)
계와 율이 생긴 까닭은?

마성 스님 (8월 13일)
(팔리문현연구소장)
남방불교의 근본계율과 수행

혜능 스님 (8월 20일)
(해인총림 울현장)
북방불교의 대승계를 수행법

지운 스님 (8월 27일)
(동화사 강원 강주)
계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

범해 스님 (9월 3일)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계율과 청규

철우 스님 (9월 10일)
(파계사 영산유원 울주)
경전속의 지계정신

각목 스님 (9월 24일)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현대사회에서의 율장정신

경성 스님 (10월 1일)
(중앙승가대 강사)
율장정신에서 본 종단의 제도

지관 스님 (10월 8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한국불교 계율의 자주적 전승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6시
장소: 동화사 통일대불전
주최: 동화사·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53)985-4404